

沈順徑 神道碑



所在地：廣灘面 新山里

時代：宣祖 5년(1572년)

撰書篆：成世昌 撰

規 模：總高 210cm, 幅 79cm, 厚 20cm

〈碑 文〉

胡襄公 神道碑銘 幷序

沈氏系出青松顯於麗季入我朝最盛有諱德符位特進輔國崇祿大夫左政丞青城伯憲公高祖生諱溫大臣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卽我昭憲王后之皇考憲公曾祖生諱渾輸忠保社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大臣輔國崇祿大夫領議政青松府院君贈謚恭肅公憲公祖生諱浚奉列大夫內資寺判官贈純忠積德輔祚功臣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卽公考視公秩贈也妣貞夫人李氏籍完山中軍副司正義塙之女宗室義安大君和曾孫以天順六年壬午十二月初六日生公公諱順徑字可遵少有俊資遊戲異凡兒恭肅鞠親于家特鍾愛教以詩書及長射御絕倫擢弘治壬子武科甲寅選授宣傳官拜訓練院判官出補東萊縣令有治績考滿拜儀賓都事陞掌隸院司儀兼內乘轉忠勤府都事甲子拜司饔院僉正陞副正特加折衝時燕山主荒亂回打圍邊圉馬忤旨杖配延日縣乙丑大起獄事公亦被囚禁獄李相國荐授歷代史書未嘗少懈丙寅九月我聖上反正公有參謀推戴之功賜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之號進階嘉善封青城君時慶尙兵使有關朝廷難其人特拜公爲節度使公撫卒禦邊皆得其宜時論多焉秩滿封君己巳丁外艱服闋還封君兼都摠府副摠管壬申拜全羅道兵馬節度使以養母李氏年請終養遂遞封君甲戌拜慶尙道左兵馬節度使乙亥丁李氏憂辛巳以聖節使赴京師丙戌又以正朝使再赴京師丁亥拜漢城左尹兼知訓練院事戊子辭遞壬寅四月以疾卒于正寢享年八十一訃聞上悼甚遣官弔祭官庇喪事葬于坡州治東牛浪洞甲坐庚向之原公英敏多大略心平氣和物無與忤與兄弟雍雍待朋友怡怡人人皆得其歡心性又謹勅居官治事詳密周慎雖閒居未嘗夷肆廢禮恬靜自守不事干請日以圖書花竹自娛常曰我以武臣受國厚恩身參盟府致位二品年踰八十人間所願畢矣子弟欲請老職掉頭不許應其操履不變如此矣世昌少從里閈知公莫如余又與公之胤子僉正爲同榜甲友遂囑余爲銘不敢以文拙辭姑志公之世系子孫之富而歸之配貞夫人申氏高靈望族性端嚴精敏資識過人事公承順無違家事整理先公而卒於己丑生三男三女長曰希源中辛酉生員今爲內資寺判官次曰興源中癸酉進士先公亡次曰引源爲果毅副司果先公亡側室自曰長源爲羽林衛僉正娶郡守韓世備之女生二男一女長曰泓壬辰武科捷戊戌英試爲司憲府監察次曰演宣略副司果女長適生員金世葉後娶僉使康績之女進士娶辛世卿之女生一

女適進士黃耆老司果娶朴世矩女生一女適弘文館直提學閔世良齊陽生一男雲爲部將參奉生三男一女男曰孔賓次男皆幼銘曰維嶽降神世作碩輔 恩洽蒸黎勳在王府慶種塗華門盈圭組光前啓後纘序承祖公稟異質妙年業武擢登大科從仕宦躉出宰百里爲民召社作鎮南紀爲國禦侮盟藏金匱惠遺南土頤養晚年天助多祐圖書一室琴酒爲伍物與爲春心絕喜怒壽餘八耋身無疾疚條然仙化豈嬰二豎坡山之麓松栢之數來卜公宅垂視千古

◆ 번역문

호양공 신도비명

심씨(沈氏)의 세계(世系)가 청송(青松)에 나서 고려말에 현달(顯達)하다. 이조(李朝)에 들어와서 가장 번성하니 휘 덕부(德符)는 벼슬이 특진보국승록대부(特進輔國崇祿大夫)에 좌정승(左政丞)이요, 청성백(青城伯)에 봉작되니 공의 고조요, 이분이 휘 온(溫)을 낳으니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 영의정 부사(領議政府事)로 곧 우리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아버님이니 공의 증조(曾祖)요 이분이 휘 회(渾)를 낳으니 수충보사정난익대(輸忠保社定難翊戴) 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영의정(領議政) 청송부원군(青松府院君) 시호(諡號) 공숙공(恭肅公)으로 공의 조부이시며, 이분이 휘 원(渙)을 낳으니 봉열대부내자시판관(奉列大夫內資寺判官)에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輔祚功臣)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증직받은 공의 아버님이시니, 공의 벼슬을 따라 증직함이라.

공의 어머님은 정부인(貞夫人) 이씨(李氏)니 적(籍)은 완산(完山) 중군부사정(中軍副司正) 의구(義塽)의 딸님으로 종실인 의안대군(義安大君) 화(和)의 증손(曾孫)이다. 천순 6년 임오(壬午 : 1462)년 12월 6일에 공을 낳다. 공의 휘는 순경(順徑), 자는 가준(可遵)이다.

어려서 높은 자질이 있어 노는 것이 보통 아이와는 다르더라. 공숙공(恭肅公) 이 친히 길러 특별히 사랑하여 시서(詩書)를 가르쳤다. 숙부(叔父) 이경공께서 아들이 없어 공께서 입양(入養)하다.

공이 장성해서는 활쏘기와 말달리는 솜씨가 뛰어나서 흥치 임자(壬子 : 1492)년 무과(武科)에 급제하다. 갑인(甲寅 : 1494)년에는 선전관(宣傳官)을 제수받고 바로 훈련원 판관(訓練院判官)이 되다. 외직(外職)으로는 동래현령(東萊縣令)으로 나가 많은 치적(治績)을 쌓았다.

만기가 되어 의빈시도사(儀賓侍都事)가 되고, 장예원사의(掌隸院司儀)에 올라 내승(內乘)을 겸하고 충훈부도사(忠勳府都事)로 전직하다. 갑자(甲子 : 1504)년 사옹원첨정(司饔院僉正)에 제수된 후 부정(副正)에 오르고 특히 절충

장군(折衝將軍)이 되다.

연산주(燕山主)가 황란(荒亂)하여 변방에 있는 말(馬)을 거두어 들이니 공이 연산주의 뜻에 거슬리어 연일현(延日縣)으로 귀양가다.

을축(乙丑 : 1505)년에 큰 옥사가 일어나니 공이 또한 왕옥에 수감되다. 이상국(李相國) 행(行)이 역대의 역사책을 옥에 넣어주어 읽도록 하니 공이 조금도 게을리 함이 없이 탐독하다.

병인(丙寅 : 1506)년 9월 중종(中宗)께서 반정(反正)을 하자 공이 참모(參謀)하여 추대(推戴)한 공이 있어 병충분의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의 호를 내리시고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자자에 오르고 청송군(青城君)에 봉군되다.

이 때 경상병사(慶尙兵使)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으나 조정에서 보임할만한 재목이 없다하여 특별히 공으로 하여금 절도사(節度使)를 삼으니 공이 군졸을 사랑하고 변방을 방어하기에 마땅하였으니 공에게 좋은 평론이 자자하였다. 만기가 되어 돌아오니 청성군(青城君)에 봉군되다.

기사(己巳 : 1509)년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상기가 끝나자 다시 봉군이 되고 도총부부총관(都摠府副摠管)이 되다.

임신(壬申 : 1512)년에 전라도(全羅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된 후 양어머니 이씨(李氏)의 노환을 봉양하기 위하여 벼슬을 사퇴코자 청하니 봉군에 체직되다.

갑술(甲戌 : 1526)년에 경상도 좌병마절도사(慶尙道左兵馬節度使)가 되다. 을해(乙亥 : 1515)년 양모 이씨가 돌아가시어 그 자리를 사임하다.

신사(辛巳 : 1521)년 성절사(聖節使)로 중국에 가다. 병술(丙戌 : 1526)년 또 정조사(正朝使)로 두 번 중국에 가다.

정해(丁亥 : 1527)년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에 제수되어 훈련원사(訓練院事)를 겸하다가, 무자(戊子 : 1528)년에 사직하고, 임인(壬寅 : 1542)년 4월 병으로 정침에서 돌아가시니 향년 81세다.

공이 돌아가심을 왕께서 아시고 매우 슬퍼하시는 한편 관원을 보내 치제하고, 관수로 상사를 도와주고 파주(坡州) 동쪽 시궁동(柴宮洞) 갑좌(甲坐) 경향(庚向)의 언덕에 장사하다.

공은 영민해서 큰 도량이 있고 마음이 평평하고 기운이 화하여 남과 더불어

거스러움이 없었으며 형제간에 화목하고 친구간에 친절하여 사람마다 모두 그 환심(歡心)을 얻었다. 성품(性品)이 근칙(謹勅)해서 벼슬할 적에 국사처리는 두루 자상하고 조심하였다. 비록 한가할적에도 함부로 행동하여 예절에 벗어나지 않았으며 조용히 수신하여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날마다 독서와 화초로 낙을 삼았다. 항상 말하기를 나는 무신(武臣)으로 나라에서 많은 은혜를 받어 몸이 공신에 참여하고 벼슬이 2품에 오르고 나이 80이 넘으니 인간의 소원을 다 했다.

자제들이 노직(老職)을 청하려 하자 공이 머리를 흔들어 허락하지 않으니 그 지조의 불변함이 이와 같더라.

나 세창(世昌)이 젊었을 적에 한 마을에서 모시고 따라 공을 잘 알고 또 공의 아들 첨정 희원(喜源)과는 동갑이고 같이 과거에 급제했다. 나에게 글을 부탁하니 감히 글이 부족하다고 하여 사양할 수 없어 공의 세계(世系)와 자손이 많음을 기록하여 들려 보낸다.

배위는 정부인 신씨(申氏)로 고령(高靈)의 망족(望族)이다. 성품이 단정하고 많은 상식이 있어 공을 섬기시되 조금도 어김이 없이 가사를 잘 정리하다. 공보다 앞선 기축(己丑 : 1529)년 돌아가시다.

3남 3녀를 놓으니 장남은 희원(希源)이니 신유(辛酉 : 1501)년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내자시 판관(內資寺判官)이 되고, 차남은 흥원(興源)이니 계유(癸酉 : 1513)년에 진사에 합격하였으나 공에 앞서 죽고, 3남은 인원(引源)이니 과의부사과(果毅副司果)가 되어 또한 공에 앞서 죽고, 측실에게서 난 아들 장원(長源)은 우림위(羽林衛)가 되다.

첨정이 군수 한세보(韓世備)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1녀를 놓으니 장남은 홍(泓)으로 임진(壬辰 : 1532)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무술(戊戌 : 1538)년 영시(英試)에 합격하여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이 되고, 차남은 연(演)이니 선략부사과(宣略副司果)가 되고, 딸은 생원(生員) 김세엽(金世葉)에게 출가했다가 돌아가신 까닭으로 첨사 강적(康績)의 딸을 재취로 하다. 진사는 신세경(辛世卿)의 딸에 장가들어 1녀를 놓아 진사 황기로(黃耆老)에게 출가하였다.

인원(引源)은 박세구(朴世矩)의 딸에게 장가들어 1녀를 놓아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 민세량(閔世良)에게 출가하다.

제양(齊陽)이 아들 운(雲)을 놓으니 부장(部將)이요, 참봉이 3남 1녀를 놓으

니 장남은 공빈(孔賓)이요, 차남과 다른 아이들은 어리다. 명(銘)에 이르기를,
산악(山嶽)의 정기로 대를 이어 석보(碩輔)가 낳으셨네 은혜는 민생에게 끼
치고 공훈은 왕부(王府)에 남아있네, 경사는 국모를 낳고 가문에는 벼슬이 가
득했네, 앞뒤를 열어 조상을 이어 받았네, 공이 남다른 자질에 일찍이 무술을
연마했네, 대과급제에 뽑혀 벼슬도 많이 했네, 외직으로 수령이 되어 백성을
위하여 명관이 되었네, 남방의 절도사가 되어 국방을 튼튼히 했네, 공신의 이
름은 금궤에 남기고 은혜는 남녘땅에 끼쳤네, 만년에 수양을 잘하니 하늘이
많은 축복을 주셨네, 도서가 한방에 가득하고 금주(琴酒)도 벗을 했네, 만물과
더불어 봄을 화합하며 희노(喜怒)가 없네, 수(壽)가 80이 넘도록 몸에 병이
없었네, 문득 선화(仙化)하여 돌아가시니 병에는 고통이 없었네, 파산(坡山)의
기슭이여 송백이 울창하네 공의 유택을 점지하니 천고에 시범이 되리

1572년 가정 42년 임신 대제학 성세창 찬